



■ 트루히요와 반(反)아이티 민족주의

서 라 연

독재자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관철시키는 사람이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에는 이런 독재자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도 도미니카공화국의 라파엘 레오니다스 트루히요 몰리나(Rafael Leonidas Trujillo Molina, 1891~1961)일 것이다.

트루히요는 그냥 독재자가 아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자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반대파의 숙청, 비밀 경찰(SIM), 언론 탄압, 부정축재 정도로 는 성에 차지 않았다. 자신을 우상화하고자, 생전에 도미니카공화국 곳곳에 동상과 기념물을 건립하는가 하면, 공공교육 기관은 물론 일반 가정도 초상화를 걸게 하였



트루히요. 훈장을 많이 달고 다닌다고 해서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은 '병뚜껑'(chapita)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다. 그뿐만 아니라 1936년에는 수도 산토도밍고를 ‘트루히요 시’(ciudad Trujillo)로 개명할 정도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다보니 웃지 못할 일도 더러 벌어졌다. 트루히요는 1937년 대선을 앞두고 야구를 좋아하는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먼저 기존의 프로야구팀 리세이 타이거즈(Los tigres del Licey)와 에스코히도 라이온즈(los Leones del Escogido)를 병합하여 트루히요 시 드래곤즈(Dragones de Ciudad Trujillo)를 창단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강팀을 합병한 것으로는 부족했던지 트루히요는 미국, 쿠바 등지에서 3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 프로야구 선수를 영입했다. 투수 사첵 페이지(Satchel Paige)는 연봉 6천 달러, 나머지 선수들은 연봉 3천 달러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요즘 연봉과 비교하면 액면가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였기 때문에, 미국 프로야구 관계자들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에이전트와 영사를 고소하여,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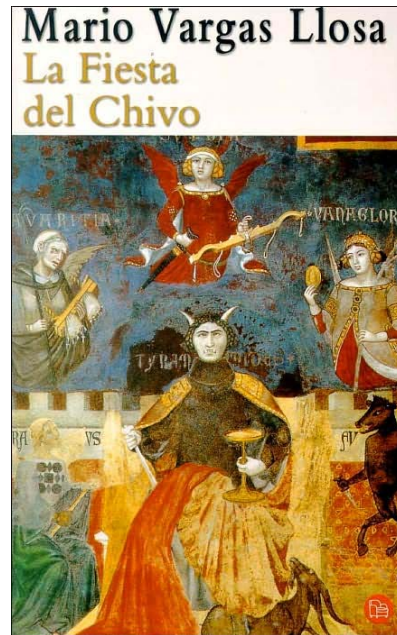
1937년도 트루히요 시 드래곤즈 팀

이렇게 영입한 야구선수들로 구성된 ‘트루히요 시 드래곤즈’가 1937년 국내 시즌에서 우승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도미니카공화국 재정으로는 연봉 3만 달러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프로야구는 1937년 시즌 이후 폐지되었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51년에야 다시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리그가 재개되었다. 이렇게 트루히요는 단 한 번의 우승을

위해서, 야구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트루히요 치하에서는 야구계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도 쑥대밭이었다. 미라발(Mirabal) 세 자매처럼 정치적인 암살, 고문, 추방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측근들의 충성심을 여자 상납으로 시험했다. 이런 측면의 트루히요는 페루 출신의 스페인 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가 쓴 소설 『치보의 파티 La fiesta del Chivo』에 잘 나타나있다. ‘치보’는 ‘숫염소’라는 뜻으로,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이 트루히요를 가리켜 사용하던 별명이었다.

대다수 바르가스 요사의 소설이 그렇듯이 이 작품 또한 복잡한 구조로 전개된다. 그러나 소설은 우라니아(Urania)의 에피소드로 시작되고 또 마감된다. 우라니아는 트루히요 시대에 상원의장을 지낸 아구스틴 카브랄(Agustín Cabral)의 딸이다. 열네 살 때인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다가 마흔 아홉이 되어서야 귀국하는 우라니아. 이토록 오랜만에 귀국한 그녀가 아버지를 원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옛날 아버지는 ‘치보’의 집에서 파티가 있다면서 우라니아를 트루히요 집으로 보냈는데, 사실은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아버지가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70살 먹은 트루히요에게 미성년의 딸 우라니아를 상납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비록 소설이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트루히요 측근들이 주기적으로 아내를 상납했기 때문이다.



바르가스 요사의 소설 표지. 이 작품은 2005년 영화로 만들어졌고, 연극으로도 자주 공연된다.



아이티(왼쪽)와 도미니카공화국(오른쪽) 지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도미니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잘못이다. 도미니카는 카리브해의 소앤티리스 제도에 위치한 독립 국가이다.

CIA가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미국의 영향력은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트루히요가 미국으로부터 토사구팽당한 이유는 1960년 6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로물로 베탄쿠르(Rómulo Betancourt)를 차량폭탄으로 암살하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9년의 쿠바혁명 실패공작에 진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는 트루히요는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트루히요가 제거되었고 곧바로 도미니카공화국에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트루히요 체제의 잔당(殘黨)이 아니라 본당(本黨)이 트루히요 사후부터 1996년까지 도미니카공화국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사실, 트루히요 체제는 물리적인 힘과 외교력만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치밀하게 조작된 역사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가능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모토는 콜럼버스, 스페인문화전통, 문명, 가톨릭, 원주민으로, 인접국가 아이티와 차별화된다. 아이티는 아프리카 문화전통, 야만, 부두교, 흑인

그렇다면 이런 망나니짓을 서슴지 않은 트루히요가 무려 31년 동안이나 권력을 유지한 비결은 무엇이였을까? 호니 아베스 가르시아(Johnny Abbes García)라는 냉혈한이 진두지휘하는 비밀경찰(SIM)의 힘이였을까? 아니면, 반공을 내세움으로써 미국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지켜준 덕분이었을까? 둘 모두이다. 특히 1961년 트루히요의 암살에 미국

국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국경조자 모호하던 국민국가형성 시기에 아이티가 한때 지배했던 사실을 들어, 야만국 아이티가 호시탐탐 문명국 도미니카공화국을 노리고 있으므로 항상 경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낸다.

실제로 트루히요는 1937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사탕수수농장 계절노동자로 일하던 아이티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아무도 모른다.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림잡아 1만5천에서 2만정도로 추산할 뿐이다. 이때부터 트루히요 정권은 본격적으로 역사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식민 시대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는 고귀한 가문의 스페인 백인과 원주민만이 살았으며, 흑인노예는 오로지 아이티에만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새빨간 거짓이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야구 선수들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세미소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은 모두 흑인의 후예이다. 이런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미니카공화국의 지배엘리트들은 원주민을 이용했다. 즉,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의 피부색이 검은 이유는 이 섬에 거주하던 타이노(Taino) 원주민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또한 역사 왜곡이다. 타이노 원주민은 콜럼버스가 이 섬에 도착한 직후 멸종했기 때문이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새미소사(Sammy Sosa). 도미니카공화국의 신분증에 따르면, 새미소사는 '원주민'이다.

이처럼 도미니카공화국의 반(反)아이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왜곡과 날조의 산물이지만 인접국 아이티에 대한 인종적·문화적 우월감을 심어준다. 따라서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지배계급의 이념을 자신의 이념으로 수용하며, ‘흑인’이라는 말은 오로지 아이티인을 지칭하는 말로만 사용한다. 그리고 트루히요 시대에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1961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통령을 역임한 호아킨 발라게르(Joaquín Balaguer, 1906~2002)였다.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은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그러나 ‘계몽적 독재자’ 호아킨 발라게르에 대한 칭송만 드높고, 역사 왜곡과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아직도 미약하다.□